

# 나주시, 세지멜론 '세론이' 일본 수출길 올랐다

### 100박스 약 500kg규모...4년간 막힌 수출시장 개척 재배면적 62ha 72농가에서 연 평균 3196톤 생산

달콤한 향, 풍부한 과즙으로 갈증을 씻어내는 나주시 대표 과일 '세지멜론(세론이)'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세지농협 멜론산지유통센터에서 세지멜론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멜론 100박스, 약 500kg 규모다. 규모는 적지만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간 닫혀있던 수출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나주시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지역특화작물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에 뒷받침됐다.

시는 그동안 세지멜론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해외 홍보를 역점 과제로 두고 농업기술원과 수출 현장 종합컨설팅, 수출전문업체 발굴·육성, 연계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나주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2농

가에서 연 평균 3196톤을 생산한다.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5기작으로 재배하는데 특히 겨울멜론의 경우 전국 생산량 약 80%를 차지한다.

세지멜론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공선시스템에 있다. 정식에서 출하까지 농가별 스케줄에 맞춘 유기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정산 체계로 출하 농가의 큰 신뢰를 얻으면서 고품질 과일 출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상차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박홍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최명수 도의원,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 김성수 에스에쓰부여 대표, 김현성 영농조합법인 광수 대표 등이 참석해 일본 수출 재개를 축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품질 세지멜론 생산과 유통, 해외시장 개척에 애써준 농가와 전



도 농업기술원, 관계 업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세지멜론과 더불어 나주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작목 발굴과 전수출단지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멜론 연작에 따른 장애, 뿌리혹선충 등 예방을 위해 슈도모나스균 등 5종 미생물 처리 농법, 휴작기를 이용한 밭짓 투입, 담수 등 농도배양 매뉴얼 보급을 위해 현지 농

가 포장에서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다. 멜론은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 노폐물 배출 등 소화 기능 활성화에 특효 과일이다.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유해 산소를 예방해주고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나주=송준표기자



## 담양군, '임산부 숲태교 힐링캠프' 운영

### 임산부 및 가족의 정서안정·신체적 건강과 태아와의 애착관계 향상

담양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등록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을 대상으로 '임산부 숲태교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힐링캠프는 임산부 및 배우자의 정서 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 태아와의 애착관계 향상을 위해 산림치유 협약기관인 국립장성숲체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됐다.

캠프에서는 부모-태아 애착 증진과 임부정서 안정 프로그램과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임산부 심신의 안정 및 신체기능향상, 부부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차 테라피 ▲자연물을 이용한 아기손수건 만들기 ▲라탄 전등갓 만들기 ▲편백 시계 만들기 ▲숲속 걷기 체험 ▲부부 요가 및 명상 ▲가족스냅사진 촬영 등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전 검진,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20일부터 상시 야간 개장

### 29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곡성군이 오는 20일부터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와 함께 섬진강기차마을을 상시 야간 개장한다.

지금까지 주간에만 운영했던 섬진강기차마을은 장미꽃 만개 시점에 맞춰 은은한 경관조명 아래에서 낮과는 색다른 풍경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매표 및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장미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오후 6시부터는 이용료 없이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10시까지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야간 개장과 함께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유료 관광객에게 지급되던 2,000원권 곡성 섬정상품권 환급제가 폐지된다.

체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 관리 인력의 증가로 인해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대체됐다. 상품권 미환급으로 인해 증가된 입장료 수입은 철도공원 조성사업 등 고도화 2단계 사

업에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섬진강기차마을의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보완해 특색 있는 구경거리와 체험거리,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하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장미공원을 기존면적보다 두 배로 넓혔고,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도 운행구간 확장과 더불어 콘텐츠를 추가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고도화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대규모 물놀이장이 함께 조성된다. 또한 고도화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가족형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치치뿌뿌놀이터, 생태학습관, 오솔랜드, VR체험관, 4D영상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각종 놀이시설과 체험거리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며, 피크닉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365이벤트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곡성=양해영기자

##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미술교실' 2강좌 수강생 모집

### 성인 대상 미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은 15일 화순읍 동구리에 위치한 화순군립석봉미술관에서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 및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성인 미술교실 유화반은 2월부터 시작해 총 3강좌로 진행되며, 1강좌를 마친 후 2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2강좌 수업은 5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5회차로 운영되며 유화그리기를 통해 기법과 색채에 대한 탐구, 다양한 표현 방법의 실습을 통한 작품 제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교육장작실에서 진행되고 모집인원은 5명이며 수강료는 8만 원이다.

수강 신청 기간은 5월 16일 화요일부터 5월 19일 금요일까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화순군립석봉미술관 누리집(<https://sbart.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수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5월 16일 신청 당일 오전 9시부터 화순군립석봉미술관(화순읍 진강로 249-8)에서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한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 '그때 그날 기록관' 전시연출 2차 주민설명회

구례군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그때 그날 기록관 2차 주민 설명회를 5월 10일(수) 14시 주민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례읍 사무소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차 주민설명회 이후 "기억의 흔적 찾기" 포스터를 부착해 홍보한 결과 총 3,500점의 자료를 찾았다. 이 자료를 구례읍의 역사·민중의 삶·구례읍의 문화예술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2차 주민설명회를 찾은 주민들은 구례 지역 원로들의 참여 및 육성 녹음 자료 구축, 향후 조성 이후 문화 해설사 배치, 메타버스 연계한 NFT 그림 전시, 1년에 1번씩 특별전시회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그때 그날 기록관이 알차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때 그날 기록관' 사업은 구례읍사무소 근대건축물을 572㎡ 복원 및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근대유산·군민 역사·마을 및 주민 영상·지리 역사를 디지털화하여 기록화하는 사업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마일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